

코오롱, 임원 43명 승진인사

성과주의 반영 ... 오기식 · 제한석 전무 부사장 승진

코오롱그룹은 2001년 경영성과에 따라 임원 43명을 승진시키는 정기임원인사를 단행했다. 2001년 경영실적이 전년에 비해 대폭 개선됨에 따라 승진 임원 수가 2001년의 32명에서 크게 늘었다.

2001년 코오롱상사에서 분리된 코오롱인터내셔널의 대표이사 부사장에 임영호 전무가 임명됐으며, 코오롱건설의 오기식 전무와 코오롱 CI의 제한석 전무도 각각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코오롱그룹 임원인사는 상장 계열사에 대해서만 이뤄졌으며 비상장사인 코오롱정보통신, 코오롱패션, 코오롱마트, 코오롱모터스, 코오롱개발, 스포렉스, 월드와이드넷 등에 대한 임원인사는 2002년 3월 추가로 단행할 예정이다.

■승진 △코오롱 <전무> 주도홍 김창호 송상현 <상무> 이춘만 서석추 안병덕 <이사> 박동문 허남춘 서윤덕) 원종현<이사보> 김달규 손우진 김윤철 배성배 △ 코오롱건설 <부사장> 오기식 <상무> 조국현 <이사> 김인호 황성철 박창규 이용철 <이사보> 박갑수 김진하 최광호 이재철 송재경 정성태 민병용 △코오롱유화 <전무> 송양선 <상무> 강명구 <이사> 장동철 <이사보> 박준식 △코오롱CI <부사장> 제한석 <상무> 신상호 △FnC코오롱 <대표이사 전무> 백덕현 <이사> 이종철 권용대 △코오롱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부사장> 임영호 <이사보> 엄준용 김정래 △코오롱글로벌 <전무> 박대근 <상무> 안병후 박기택 김만연

■전보 △코오롱캐피탈 <상무> 김종구

<Chemical Daily News 2002/ 02/ 22>